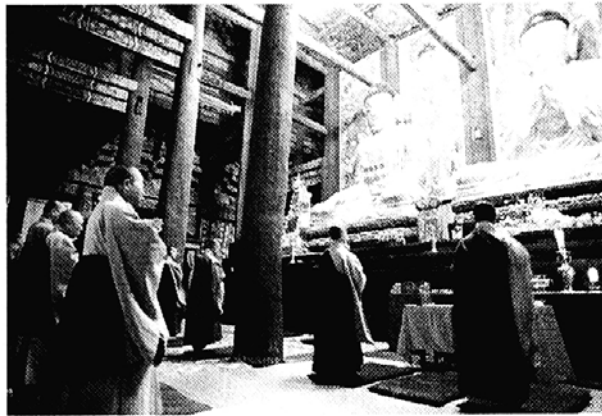


“신중단 예경의식 대신 반야심경독송 ‘봉암사 결사’ 이후 선종심 변화”

송현주씨 서울대 박사논문 ‘근대 한국불교 예불의 성격에 관한 연구’



◇현대 예불의식(반야심경) 독송은 1947년 '봉암사 결사' 이후 신중단 예경의식에서 변화한 것이다. 사진은 예불의식 장면.

“예불의식 가운데 기존의 신중단(神衆壇) 예경의식이 현재의 (반야심경) 독송으로 변화된 것은 성철·창담스님이 선법(禪法) 중흥을 위해 주도한 ‘봉암사(鳳巖寺) 결사’에서 비롯됐다.”

한국불교 예불의 변화과정을 통해 현대 한국불교 예불의식이 갖는 의의를 고찰하는 등 한국불교 예불만을 집중 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화제다.

송현주씨(종교학과)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근대 한국불교 예불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한국불교 연구분야에서 한반도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예불의례란 본래적으로 연구하며 현대 한국불교 예불의례가 성립된 배경과 의미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한국불교의례는 연상제, 예수제, 수륙제 등 대규모 전문의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돼 왔으며 출가 수행자 중심의 대의의례(對自儀禮)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송씨는 월은스님의 <일용의식수문기(日用儀式隨聞記)>에 나타난 현대 불교예불 형식이 자리잡게된 ‘시절’에 주목하고 “현대 불교의례는 전통예불 의식에 비해 선(禪) 중심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한국불교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자신의 종파적 정체성을 선종(禪宗)에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씨는 1947년 성철스님과 창담스님, 자운스님, 원산스님 등이 경북 봉암사에서 결사를 맺고 선법의 중흥을 모색한 것이 한국불교 예불의례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있다. 이 결사 기간동안 성철스님과 창담스님의 주도하에 신중단 예경의식이 (반야심경)의 독송의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봉암사 결사는 일본불교인 대척불교를 밀어내고 한국불교를 재흥시키는 초석이 됐던 결사로, 특히 성철스님은 한국불교의 내적 정

화의 하나를 한국불교 전래의 의식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었다. 신중단 예경의식이 (반야심경) 독송으로 바뀌게 된 것도 선종의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송씨는 “중단예불이 (반야심경)으로 대체된 것은 이 경전이 지닌 선종과의 친화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력수행(自力修行)을 목표로 하는 선종의 입장에서 궁극적 모델로 삼는 이상적 인간형이 부처님이기 때문”이라며 “선종에게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고 선종들에게 불법을 들려주어 깨닫게 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는 “현대 한국불교의 예불의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불형식은 과거 동종파적 성격으로부터 선종 중심의 성격으로 재편되어온 과정”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비록 전체 예불의식 중 일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는 하지만 대웅전 상단에 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불교가 자신의 종파적 정체성을 선종에서 찾았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일용의식수문기>에 의하면 현대 한국 예불의례가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정립된 것은 1950년 전후로, 현행 대웅전의 상단(上壇)예불문이 <칠정례(七頂禮)>로 정리되어 널리 쓰이기 시작하는데 송씨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역사에서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있었던 식민통치와 해방의 시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에 의해 문화가 개방된 후 한국불교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외래종교와의 대면, 일본 종파불교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종파적 정체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 일제하의 이러한 상황은 불교의식 문헌 속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대각의식(大覺儀式)>, <석문의범(釋門儀範)> 등은 종래의 의식집과는 달리 의식을 간소화하고 모든 의식문을 한글로 표기하여 포교의 자료로 삼고자 하고 있다. 송씨는 “종래에 강행된 불교의식집들이 종파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에 발간된 <석문의범> 등은 선(禪)·교(敎)를 구분하는 등 한국불교 교단의 정체성 탐구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는 “선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知的), 엘리트적 성향 때문에 민중 교화의 차원에서 의례화의 기제(機軸)로서는 한계를 지닌다”며 “교리적·사상적으로는 그 취약성을 화엄사상으로 보완하고, 의례면에서는 정토와 밀교 등을 통해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업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현대 한국 불교의 예불이 지금까지 선종중심으로 재편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개양상 역시 선종중심의 성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신집과는 달리 의식을 간소화하고 모든 의식문을 한글로 표기하여 포교의 자료로 삼고자 하고 있다.

송씨는 “종래에 강행된 불교의식집들이 종파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에 발간된 <석문의범> 등은 선(禪)·교(敎)를 구분하는 등 한국불교 교단의 정체성 탐구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씨는 “선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知的), 엘리트적 성향 때문에 민중 교화의 차원에서 의례화의 기제(機軸)로서는 한계를 지닌다”며 “교리적·사상적으로는 그 취약성을 화엄사상으로 보완하고, 의례면에서는 정토와 밀교 등을 통해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업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현대 한국 불교의 예불이 지금까지 선종중심으로 재편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개양상 역시 선종중심의 성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시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기독교를 ‘자기를 건우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자(他者)’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인들이 탈종교화나 세속화로 내몰리는 것은 경쟁종교 때문이 아니라 ‘이성 만능주의’나 ‘세속주의’라고 하는 공적(公敍) 때문인 것을 각 종교인들은 인식해야 한다”며 “상대 종교에 대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이같은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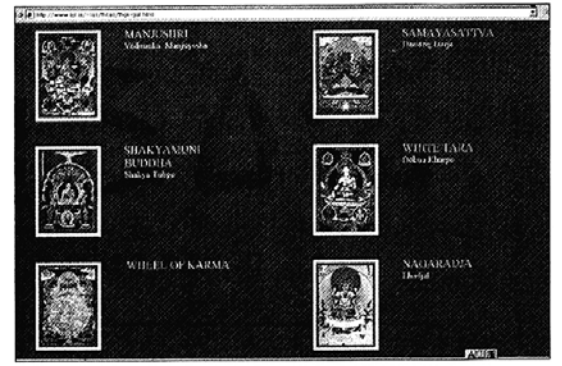
‘대혜서장 연구’

보조사상연구원
25·26일 불일회관
선전연구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이사장 현 호스님)은 ‘대혜서장(大慧書狀)’을 주제로 25~26일 불일회관에서 제2차 선전(禪典)연구 발표회를 갖는다.

<대혜서장>은 중국 종교(宗敎)·1088~1163)선사가 학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책으로, <도서> <선요> <잡요>와 함께 우리나라 불교 강원의 사집(四集) 중 하나.

△중국 선종사에서 간화선의 위치(혜원스님·동국대) △간화선의 사회적 배경(종호스님·동국대) △대혜 간화선의 특징(인경스님·보조사상연구원) △대혜의 목조선비관(김호국·동국대) △서장이 보조사상에 끼친 영향(이병욱·고려대) 등이 발표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링크

티벳불교 상징예술품 30여점 전시 탕카제작 과정-부분별 의미 소개

티벳불교 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불교예술품을 꼽는다면 탕카(thangka)와 만다라(Mandala)가 단연 으뜸이다. 인터넷 사이트 ‘불교 탕카 갤러리(Buddhist Thangka Gallery)’와 ‘다르마팔라-탕카학교(Dharmapala Center)’를 방문하면 고화질 그래픽 탕카 30여 점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탕카 제작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국내 불교미술의 명화와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탕카는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의 이치를 담고 있는 티벳불교의 예술품으로, 티벳사람들이 주로 명상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티벳불교의 탕카에서는 6가지 색상 즉, 흑·남·황·적·백·파랑이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흑색은 근원적인 에너지를 의미하고 남색은 물, 황색은 땅, 적색은 불, 녹색은 공기, 백색은 대기 밖의 영기(靈氣)를 의미한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탕카 중에서 ‘따라보살’, ‘마하칼라’, ‘육도윤회도’ 등은 국내 불자네티즌에게 이국적 불향을 느끼게 한다.

△따라(tara)= ‘바다나 강을 건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일을 도와 주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어느날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중생의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해, 이것을 보고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오른쪽 눈물에서 녹색 따라보살이 태어나고 왼쪽 눈물에서 백색 따라보살이 태어났다고 한다. 미간과 양손 양발바닥에 7개의 눈이 있다는

백색 따라보살은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마하칼라(Mahakala)=관세음보살이 사악한 중생을 제도할 때 나타내는 관음의 분노존이며, 회두교에서 파괴의 신(神)인 시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칼라(kala)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이 모든 것을 죽음을 관할하는 것은 물론 탕카 제작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국내 불교미술의 명화와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탕카는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의 이치를 담고 있는 티벳불교의 예술품으로, 티벳사람들이 주로 명상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티벳불교의 탕카에서는 6가지 색상 즉, 흑·남·황·적·백·파랑이 주로 사용된다고 한다. 흑색은 근원적인 에너지를 의미하고 남색은 물, 황색은 땅, 적색은 불, 녹색은 공기, 백색은 대기 밖의 영기(靈氣)를 의미한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탕카 중에서 ‘따라보살’, ‘마하칼라’, ‘육도윤회도’ 등은 국내 불자네티즌에게 이국적 불향을 느끼게 한다. △따라(tara)= ‘바다나 강을 건너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윤회의 바다를 건너는 일을 도와 주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어느날 관세음보살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 중생의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해, 이것을 보고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오른쪽 눈물에서 녹색 따라보살이 태어나고 왼쪽 눈물에서 백색 따라보살이 태어났다고 한다. 미간과 양손 양발바닥에 7개의 눈이 있다는 (gobaou@buddhapia.com)

불교 탕카 갤러리 <http://www.iol.ie/~ias/thkas/manj-w.html>
다르마팔라-탕카학교 <http://artsci.wustl.edu/~rrscott/>

‘우리가 다른종교를 배워야 하는 까닭’

서강대 운영해교수 ‘해인’ 2월호에 발표

“타종교에 대한 연구는 종교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대화적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해인>지 2월호에 실린 ‘우리가 다른종교를 배워야 하는 까닭’에서 운영해 교수(서강대)는 “타종교에 대한 연구와 이해없는 종교간

의 공존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다른 종교를 이해하는 정도와 다른 종교인에게 자기 신앙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정비례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운씨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해탈사건을 사례로 들며 “기독교인들에게 불교를 이해

해·태·상·사·(주) 그린홈 매트

구경효도 특별 세일 50%

국내 굴지의 수출 선도기업 해태상사(주)가 불자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건강제품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돌침대의 건강효과와 침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첨단 맥반석 코팅 방법으로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그린홈 매트 크기 : 200×140×50, 2인용

● 그린홈 매트 구매 포인트 하나

-건강소재를 확인하세요!
-세균을 죽이고 시멘트 독성까지 중화시키는 비가열성 일라이트 세라믹!!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100% 천연 일라이트 효과!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원적외선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상온에서도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탁월한 건강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 그린홈 매트 구매 포인트 둘

-건강매트 열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최첨단 사상발열체만 안심입니다.
-발명특허 제 189433호 일본 교호소가이 (KYOWA SHOKAI)의 기술자원으로 개발된 사상발열체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열선과 달리 생활 건강용으로 개발된 특수 열선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고급 차량에 기본 장착되고 있고 병원 물리치료용 온전위 치료기에 사용되는 열선이 바로 사상발열체입니다.

● 그린홈 매트 구매 포인트 셋

전자파 차폐전 (실용신안등록) 그린 홈 매트는 인체의 피부가 직접 닿는 제품이라 유해 전자파의 효과적인 차단은 매우 효과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대형 전자제품 공작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성분을 이용한 전자파 차폐제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전자파 차폐제는 한국 표준 과학연구원서 선진국 기준치 이하의 전자파 차단 효과를 공인 받은 제품입니다. 말 많고 달콤한 전자파 유해논쟁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 그린홈 건강매트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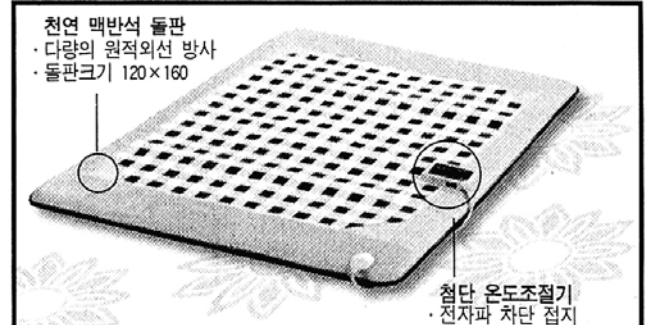
1. 인체에 가장 유익한 양질의 원적외선(8-14μm)이 다량 방사되는 비가열성 일라이트 세라믹과 사상발열체 등 첨단 열판을 사용하여 최고의 원적외선 방출 효과를 나타냅니다.
2. 사계절 보온과 찜질용으로 여름에는 돌판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3. 전기사용량이 일반 전기장판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4.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인증 전자파 차폐제를 사용해 전자파를 근원적으로 차단합니다.
5. 디지털 마이크로 방식의 온도조절기는 최적의 수면 온도를 제공합니다.

● 원적외선의 효과

그린 홈 매트는 발열과 동시에 원적외선이 피하조직 40-50mm

까지 침투하여 다음과 같은 건강증진 효과를 나타냅니다.

- 공명, 공진현상을 통한 생체 에너지 활성화
- 모세혈관 확장(골다공증 제거)
- 혈액순환 촉진(치질, 여성 냉증에 효과)
- 대사 장애 요소를 해소(소화촉진)
- 조직부합(무릎, 어드름, 등상에 효과)
- 효소생성 촉진 - 피로회복 및 감기 예방 - 체중절감



- ▶ 단체 구입시 샘플을 원하시면 샘플을 보내 드립니다.
- ▶ 건강매트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 포교기금(노숙자 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 사할을 통한 단체구입 주문(5장이상)도 받습니다.

● 구입문의 : 물.부다피아 소풍물 02)732-1522
● 특가가격 : ₩660,000 ₩298,000 (구경-대보를 한정)

· 사용중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 A/S기간:1년 (T.02)613-8098

해태상사(주) 그린홈매트 제조원 : (주)MCI